



## 할렐루야 2010 대뉴욕 복음화대회 성황

2010 할렐루야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마지막 대회는 7월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됐다. 마지막 날인만큼 가장 많은 이들이 대회장을 찾아 퀸즈칼리지 콜드 센터를 가득 메웠다.

이날은 선교팀 파송식을 가졌다. 뉴욕 목회자들은 북미 원주민 보호구역, 도미니카 공화국, 고틀라 말라로 떠나는 60명의 단기 선교팀을 위해 안수 기도했다. 뉴욕 교회는 일인당 2백불의 선교비를 지원했다.

김삼환 목사는 ‘교회와 함께 일어나라(마 16:18-19)’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삼환 목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며 “교회 안에서 믿음이 굳센 성도들도 자라나 뉴욕과 세계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원기 목사와 참가자들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삶의 현장에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 교회간 연합에 힘쓸 것, 사이버 이단 세력을 배척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할렐루야 2010 대뉴욕 복음화 대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마지막 날 대회는 김남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윤주이 기자>

## 2014년 WEA 총회,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다

###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 본부 방문해 매듭

WEA(세계복음연맹)의 2014년 총회가 한기총의 유치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WEA는 7월 10일 공식 발표를 통해 “2014년 WEA 총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4년 총회는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있는 세계적 인 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을 위한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총에서도 “지난 7월 8일에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뉴욕에 있는 WEA 국제본부 방문해 WEA 국제대표 제프 터니클리프 박사와 만났다”며 “2014년 WEA 총회를 유치하겠다는 한기총의 제안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해온 WEA

가 이 만남을 통해 서울 개최를 매듭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그 자리에서 “2014년 WEA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며, 한국 기독교인들과 세계교회가 협력하는 데 있어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 관계자는 “이 대표회장의 이번 WEA 방문은 사전에 조율하여 예정되었던 일정이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귀국하는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WEA 발표에 따르면, 터니클리프 박사는 “대한민국 서울이 WEA 총회를 유치함에 있어 이상적인 장소라고 믿는다”며 “IT 기술이 발달한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총회의 주요 순서들을 세계로 방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WEA 총회는 동맹의 사역 지도, 지도자 훈련, 상호 배움 및 파트너십 촉진 그리고 시너지를 만

들고 세계를 향한 영향력을 미치는 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 6년마다 개최된다. 한기총의 유치로 2014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한국 기독교인들을 위한 집회와 한국교회 지도자와 목회자를 위한 특별순서가 포함될 예정이다.

WEA는 세계 7개 지역의 128개국의 복음주의 연맹과 104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나라를 제자 삼고, 사회의 그리스도 중심적 변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비전으로 세계 4억 2천만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독교 연합을 증진시키며, 정체성, 목소리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 2009년 6월 9일 WEA 정회원(Full national alliance member)으로 가입했으며, 당시 대표회장이었던 엄성형 목사에 의해 2009년 11월 5일자로 WEA에 2014년 총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다.

<류재광 기자>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이 WEA 총회 한국 유치가 확정된 후 제프 터니클리프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제4대 담임으로 취임

### 8월 1일 문병용 목사 담임 취임식 열려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담임 이정근 목사)의 제 4대 담임목사가 문병용 목사로 결정됐다.

유니온교회는 주일(4일) 청빙승인투표를 실시해 95%의 신임을 얻어 새로운 담임목사를 확정 지었다. 이어 지방회로부터 청빙을 승인 받았다.

그간 유니온교회를 담임해 온 이정근 목사의 은퇴식

및 새로운 담임목사의 취임식이 오는 8월 1일 오후 4시 본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권사 및 안수집사 안수식도 함께 거행된다.

문병용 목사는 서울신학대학 신학과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했으며, 클레몬트 신학대에서 D.Min. 학위를 받았다.

또 그는 ICI(In Christ International) 선교회 부총무와 서울중앙신학교 교수 역임했으며, Holy Nation(외국인 노동자 선교회) 영어설교 사역과 서복교회를 개척했다.

주소: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Tel. 626-858-8300 <박삼미 기자>

###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의 다룹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 21세기 영적대추수를 준비하는 HARVEST 세미나

“이민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하베스트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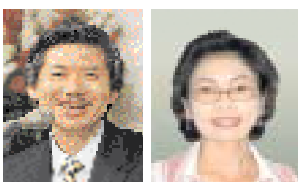
### 1 성령의 시대를 향한 목회자의 준비-성령충만

영혼을 얻는 일이 목회자 개인의 노력과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현장의 생명은 결국 목회자 자신이 성령충만한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회심과 변화,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목회현장의 증거와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이 부분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성령충만은 목회의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성령의 시대, 영적대추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재까지의 경험적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께 온전히 열린 마음과 강력한 사로잡힘,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출발이며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목회자 개인이 스스로 이런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 부분에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명을 받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제언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 세미나 주강사



**김종필 목사(부부 엘리자벳 미니스트리)**  
김종필 목사는 미국에서 김은주 사모는 필리핀에서 지구촌 최대의 부흥을 주신다는 소명을 받아 마지막 대추수와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기도의 용장입니다. 부흥과 중보기도 그리고 선교는 함께 가는 것임을 강조하며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의 군대를 통한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기도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사역하고 있다.  
www.elijahkim.org

### 2 성령의 시대를 향한 목회 현장의 준비-전문성

그러나 성령 체험만으로 목회적 준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는 종합예술이다’라는 말이 암시하듯 현장사역을 위한 전문성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 영성에 치중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 학위도 있고 인격도 훌륭하고 설교도 좋은 목회현장은 어려운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개인적 영성만으로 목회가 쉽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역을 해 낼 수 있는 사역적 영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개인적 영성과 사역적 영성이 함께 갖춰질 때 살아 숨쉬는 건강한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게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영적 교제가 살아 있는 소그룹, 삶의 변화가 있는 제자훈련,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역동적 사역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광스런 생명의 예배 등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적 노하우들 - 이번 세미나에서 초점을 두게 될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 3 성령의 시대를 향한 사모의 준비-소명 재확인

목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사모의 준비입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 진리이다. ‘사모가 살아야 목사가 산다’는 말도 진리입니다.** 목회자 자신의 그릇과 사역의 연속성은 결국 사모의 준비, 즉 사모의 영적, 인격적 그릇의 크기만큼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모는 목회현장의 든든한 동역자가 될뿐 아니라 가장 큰 무기와 자산입니다. 그러나 사모는 영적 재충전의 우선순위에 있어 뒷전에 밀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명의 재확인! 열악한 이민교회를 섬기는 사모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힘있게 섬기려면 영적재충전과 사모되는 소명에 대한 철저한 자기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사모의 영적 재충전 및 소명의 재조명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회복과 치유, 소명을 확인하는 복된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 담임)

제자훈련의 변방이라는 LA 한인타운에서 2009년 12월 개척하여 강력한 말씀운동과 균형 잡힌 성령운동을 통해 한신대 제자들을 세우고 있는 이민목회자다. 간판 없는 삼기 교회로 시작하여 지금은 1000여명의 중령교회로 성장하였다. 차세대 목회자 양성 및 건강한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 보임소명을 통한 책임 있는 다음세대 신앙계승을 강조하며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품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www.LAsarang.com

#### 세미나 일정

주후 2010년 8월 2~5일 (월-목)  
온라인등록 [sarangtree.com](http://sarangtree.com)

**장소 Radisson Hotel LAX**  
6225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LA공항에서 24시간 호텔 무료 셔틀이 제공됩니다)

**등록비 (3박 4일 호텔 숙박료, 식사간식비, 세미나 교재 포함)**  
**목회자 \$325 (7개인), 사모 \$250 (7개인) / 부부 \$525**  
(세미나 초과 등록시 부부가 함께 오시는 분들께 우선권을 드립니다.)

**등록마감 선착순 300명** (초과 등록시 대기자 명단 있음)

**문의사항 하베스트 세미나 담당자**  
213) 386-2233  
LAsarang@gmail.com

#### 주관

ELIJAH KIM  
MINISTRIES

LA사랑의교회  
LA Sarang Community Church  
5211 W. Century Blvd., Pastor Kiwoon Kim



# PCUSA, 동성애자 성직 안수 금지 조항 삭제



신시아 볼바크 총회장. ©PCUSA

## 1997년 이래 4번째 시도... 보수 회원들 강한 반발 예고

USA장로교회(PCUSA)가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허용하는 길을 다시금 열었다. PCUSA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219회 총회에서 교단 헌법 중 '목회자 및 장로, 집사 등 모든 제직자는 남성과 여성 결합의 신실한 결혼 정립 및 혼전 순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정절과 순결 조항(G-6.0106)'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지난 총회에 이어 또다시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절과 순결 조항 삭제를 위한 시도는 1997년

이래로 4번째가 됐다. 앞선 세 번의 경우, 개헌안 발효를 위해 요구되는 전국 173개 노회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개헌 시도가 무효화돼 왔다. 이번에도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수의 노회 찬성을 필요로 한다.

개헌안은 바로 전 회기인 2년 전과 마찬가지로 근소한 표차로 통과돼(373:323) 총대들 간 의견 대립이 치열했음을 보여 준다. 이번 총회에서 동성애 성직자 안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절과 순결 조항 삭제 찬반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PCUSA 내에서는 투표 결과에 따라 벌어질 수도 있는 혼란을 미리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총회 후 개헌안 통과에 반발한 보수 회원들 7만여 명이 교단에서 탈퇴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 까닭이다.

신시아 볼바크 신임 총회장(moderator)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지난 15년간 교단 내에서 진행되어 온 동성애 문제와 관련한 대화의 일부임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PCUSA 총대들은 총회 기간 동성결혼 축복, 동성애자 성직자 안수 등 논란을 빚어 온 문제들의 결정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포는 갈등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대화를 지속해나가자는 합의에 이르렀다. 볼바크 총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성적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을 교회의 모든 제도 안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총회 기간 함께 논의됐던 교단 규례서(Book of Order)에서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문제를 '남성과 여성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현재의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손현정 기자〉

# 수정교회 로버트 슈러 목사 목회 계속



최근 언론으로부터 수정교회 로버트 슈러(Robert H. Schuller)가 은퇴할 것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수정교회 웹사이트(www.crystalcathedral.org)에는 은퇴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발표됐다.

America) 캘리포니아 감독회가 지난 12일 실라 슈러 콜맨을 공식 담임 목사로 임명하면서 발생했다. RCA교단은 로버트 슈러 목사의 후계자로 알려졌던 아들 로버트 A 슈러 목사(Robert

는 것이 교회 측의 입장이다. 실라 슈러 콜맨 목사는 수정교회 웹사이트에 "담임 목사 임명은 교단의 형식적인 확인 절차일 뿐이며 본인의 사명은 아버지인 로버트 슈러 목사를 위해 기도하

## 담임 목사직만 딸딸이 승계, 실제 목회는 변화 없어

로버트 슈러 목사의 딸딸 실라 슈러 콜맨(Shiela Schuller Coleman) 목사는 "아버지의 은퇴 소식은 완전한 오보"라며 "교회 내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로버트 슈러 목사 은퇴에 대한 오해는 수정교회 소속 교단인 RCA(Reformed Church in

Anthony Schuller)가 지난 2008년 아버지와 목회 철학이 달라 수정교회에서 사임하면서, 다시 담임 목사를 찾던 중 지난 7월 12일 실라 슈러 콜맨 목사를 임명했다. 이는 단지 담임 목사직을 형식적으로 공식 임명한 것일 뿐, 로버트 슈러 목사의 목회는 계속된다

며 계속적으로 그가 은혜로운 설교를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관계자 또한 "교단에서 형식적으로 담임 목사직을 그의 딸로 임명했을 뿐 로버트 슈러 목사가 은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재일 기자〉

# 성경, 2025년까지 전 세계 언어로 번역 가능

성경이 오는 2025년이면 오늘날 지구상에서 말해지고 있는 모든 언어로 번역될 수도 있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는 6,905개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서 3분의 2 가량이 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

Translators)는 오늘날 기술과 번역 전략의 발전이 향후 15년 안에 이같은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999년만 해도 WBT는 성경 번역이 모든 언어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140년에서 150년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시

속시켰다. 이외에도 번역 소프트웨어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빠른 시간 내 번역이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WBT는 적게는 5개 많게는 12개까지의 서로 비슷한 언어들을 한 그룹의 번역팀이 동시에 담당하게 함으로써 번역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성경의 순서대로 번역하던 이전의 방식보다는 미전도종족에게 전해졌을 때 파급력이 가장 큰 신약성경들의 주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폴 에드워즈 WBT 총무는 "하나님께서 2천 년 이상을 이끌어 오신 사역이 이 세대에 성취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며 많은 이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헌신을 당부했다.

〈손현정 기자〉

## 기술 발달과 사역 전략 발전이 큰 기여

고 있다. 약 3억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2,200여 언어로의 번역이 아직까지 과제로 남겨져 있는 셈이다.

이처럼 성경 번역의 역사에 중추를 짚게 되는 것이 2025년쯤이 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왔다. 전 세계 최대의 성경 번역 사역 단체인 위클리프바이블트랜슬레이터즈(WBT, Wycliffe Bible

단체는 1년에 평균 20개 언어로의 새로운 번역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10년 후인 2009년, WBT는 109개 언어로의 번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기술의 발전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단체는 밝히고 있다. 휴대 가능한 위성 장치와 노트북의 발명은 불필요하게 소요됐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허심본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없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운, 강도, 절도법, 경범죄,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이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www.rosehills.com

저렴한 가격과 가까운 장례식장을 원하신다면...

품격있는 명품 장례식- 로즈힐 장례 서비스

한국인 직원들이 한국어 서비스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며 로즈힐만의 100여년 전통과 노하우를 특별하게 모사했습니다.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 LA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한인 장례 매니저의 친절한 맞춤 서비스
-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6개의 아름다운 채플
- 종교에 따른 다양한 예식 • 저렴한 장례 관가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010

본사(한국어 직통) | 1-888-848-8707 브레이크 | 562-809-7027  
세인트스텝(한국어 문의) | 1-877-767-8850 장의 & 장례보급 | 562-809-7027





선교파송예배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

# KCCC USA, 11개국 여름 단기선교 떠나

한국대학생선교회(KCCC USA)는 '2Every1'이라는 주제로 몽골, 터키, 남아프리카, 일본, 베트남, 미국 등 11개국 여름 단기선교를 떠났다. 단기선교팀은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1차팀과 2차 선교팀으로 구성됐으며 각 선교팀들은 각 나라별 선교지 소개와 기도제목을 전해왔다.

### ■ 동아시아 ■

63명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는 이상일 간사와 8명의 간사가 참여한다. 13억 인구나 경제성장의 발판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미래의 젊은이들이 있는 대학 캠퍼스는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 요충지다. 선교 팀은 젊은이들에게 영어 수업과 친구 초청의 날을 통해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 ■ 일본-오사카와 삿포로 ■

데이빗 조 간사와 2명의 간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며 총 32명이 참여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영적 갈급함이 있는 일본 땅에 노방전도와 영어학교, 한글학교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 ■ 캄보디아 ■

캄보디아는 총 1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김주엽 간사가 팀을 이끈다. 50여년 전 한 독재자로 인해 인구의 3분의 1이 몰살당하고 지식계층이 없어진 상황이다. 잦은 내란과 반란 때문에 아직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대학가를 중심

으로 신흥 지식 계층이 다시 일어나고, 복음으로 인해 그 땅에 영적인 계보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 ■ 베트남 ■

김정숙 간사 외 2명의 간사가 이끌고, 총 20명의 학생으로 구성됐다. 사이공시 호치민 대학을 방문한다. 2009년 여름 9년 만에 다시 개척을 시도한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감시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어 학원을 빌리고, 중국 식당

소와 친절함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우울함과 허무함이 있다. 국민 전체뿐만 아닌 대학가에도 불교의 영향과 우상숭배, 마약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불교의 '전생' 영향으로 성적 정체를 혼동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 수술이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캠프가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10년 이상 LA KCCC와의 캠퍼스 사역을 통해 현지 캠퍼스 간사들이 다수 배출된 나라다.

교 기간은 7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다.

### ■ 태국 ■

태국은 조나단 리 간사 외 1명의 간사와 9명의 학생들로 이뤄져 있다. 이번 터키 미션 팀은 99.8%가 무슬림 지역이다. 태국 내 도시 6개 대학을 돌며 학생들을 전도할 예정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된 학생들을 대학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선교 기간은 7월 2일부터 27일까지다.

### ■ 뉴질랜드 ■

뉴질랜드 옆 작은 나라 통가. 황지영 간사와 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팀은 1차로 선교를 마친 상황이다. 통가 팀도 이번 처음으로 참여한 개척국이다. 캠퍼스 전도와 현지 간사들을 돕는 사역을 한 이번 선교에는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사역 환경으로 인해 아름다운 사역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LA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에서 개최된 파송예배에서 KCCC USA 대표 김동환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다. 이번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체험하고 우리 모두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위대한 여름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올해 여름 단기선교에는 300여 명이 넘는 학생들과 40여명의 간사들이 참여해 각 나라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재일 기자)

## '2Every1' 주제, 몽골베트남, 터키 등 캠퍼스 선교 펼쳐

을 빌려 친구들을 초청해 복음의 비밀을 나눌 계획이다.

### ■ 몽고 ■

몽고 팀은 제인 박 간사와 데니얼 김 간사가 총 18명의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다. 도시전도와 시골전도로 크게 나뉘, 도시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로 학생들을 접촉할 예정이다. 노메드 트립(Nomad Trip)이라는 유목민 전도에서는 움막 형태의 작은 마을들을 돌며 예수 영화를 상영한다.

### ■ 태국 ■

태국 선교는 백진희 간사와 6명의 간사가 태국 북부, 방콕, 태국 남부 대학에 파송된다. 태국 청년들은 겉으로 보이는 밝은 미

### ■ 필리핀 ■

전 국민 85%가 가톨릭인 필리핀. 10명의 학생과 바비오 간사가 캠퍼스 선교를 진행한다. 이곳에서는 음악사역으로 복음을 전한다. 2년째 맞는 필리핀 음악 사역은 노방전도, 캠퍼스 전도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준비한 공연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 ■ 사우스 아프리카 ■

사우스 아프리카는 이영복 간사와 11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아프리카 팀은 올해가 첫 번째 개척사역이다. 미국 USCM팀과 현지 아프리카 캠퍼스 팀과의 좋은 팀워크를 기대한다. 선

## KAMA 합창단 "아이티를 위해 노래 불러요"



KAMA 합창단은 아이티 구호 기금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굿네이버스 제공

진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티의 어린이들을 위한 코리안-어메리칸 뮤직 아카데미(KAMA: 지휘자 류지원, 줄리안) 소년소녀 합창단의 연주회가 First Congregational Church of LA 에서 지난 6월 20일 열렸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KAMA 소년소녀 합창단은 이번 정기 연주회로 아이티 구호 기금을 마

련, 더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류지원 지휘자는 "올 해로 20주년을 맞는 합창단 정기연주회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KAMA합창단은 모아진 성금 \$5,197.10을 지난 28일 굿네이버스USA(대표 오은주) 사무소에서 방문해 전달했다.

(박삼미 기자)

## [새벽강단 2] 청운교회 새벽예배

# 소중한 친구를 위한 새벽기도

## 청운교회 '소중한 친구들을 위한' 새벽예배 드려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청운교회(담임 이명수 목사)는 매주 토요일 새벽예배에서 소중한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각종 행사로 영혼들을 인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청운교회는 소중한 친구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영혼구원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문〉행 13:44~48 사도바울이 안디옥교회의 파송을 받아 복음증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바울과 바나바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를 하게 됩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이와 같이 사단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처럼 그 사단의 역할을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지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46절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합니다.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이 꼭 복음증거의 반대자들, 방해자들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48절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의 방해가 심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 노력하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핍박이나 방해가 없다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친구들은 다 믿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박삼미 기자)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 뉴비전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뉴비전교회는 1981년 창립되어 그동안 북가주 지역에서 교포와 지역사회 복음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차세대 이민교회의 새 비전을 제시하실 담임목사를 모십니다.

### 자격

1. 이민 목회의 새 비전과 소명이 있는 분
2. 교회에서 인정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남침례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분
3.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신 목회경력 5년 이상으로 담임목회 경험 있는 분
4. 저희 교회내의 영어권과 함께 사역이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한 분
5. M.Div나 Th.M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이상

### 서류

1. 이력서 (Resume)
2. 자기소개 (가족 포함) 및 목회 비전서 (Mission & Vision Statement)
3. 졸업 및 안수 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ion & Ordination)
4. 본인 /가족사진 1매
5. 설교 Tape / CD 혹은 Video Tape 2개
6. 3 명의 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7. 마감날자: 7/19/2010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처

New Vision Church  
C/O Sr. Pastor Search Committee (청빙위원회)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Tel: (408) 719-0000 Fax: (408) 719-0007  
Email: srpastorsearchcte@newvisionchurch.org





갈보리민음교회 차종순 목사 초청 부흥회 개최

“하나님 영광 위해 꿈꾸는 지도자 되라”



며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라”고 권면했다.

꿈을 가진 자의 특징에 대해 차목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성경은 때를 귀히 여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1분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준비하세요.” 또한 그는 꿈을 가진 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꿈을 꾸는 자에게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은 것처럼 성적인 유혹이 있으나, 거룩한 삶으로 정결해야 한다”며 청년의 시절 하나님만 의지하며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갈보리민음교회(담임 박형택 목사)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차종순 목사(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초청 부흥회를 개최했다.

꿈과 비전이란 주제의 부흥회에서 차종순 목사는 “꿈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며 “청년의 때 꿈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셉처럼 17세에 신학자로서의 꿈을 꾸고 흔들림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17세 꿈꾸는 청년의 마음이에요”라는 차목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한다”

끝으로 차종순 목사는 요셉이 결국 용서의 사람이 됐으며, “사람들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지재일 기자>

사랑의띠선교회, 창립 11주년 축하예배 드려



사랑의띠선교회가 창립 11주년 축하예배를 드렸다. (앞줄 가운데 김전환 선교 목사)

사랑의띠선교회(대표 김전환 선교 목사)가 지난달 24일 W 올림픽 블러버드에 위치한 교회에서 창립 11주년 축하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전환 선교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성민교회 김인철 목사가 설교했다.

‘밤중에 드린 기도’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한 김인철 목사는 “사도 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소망

없는 감옥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사랑의띠선교회가 지난 11년 동안 매주 모여 기도하고 찬미한 것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의 10년은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헨리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태근 기자>

“구원의 감사로 헌신하는 삶 살아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주저되는가? 어떤 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시원스럽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로마서를 다시 보자. 미주성산교회는 매주 토요일

이르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어진 오늘날의 기독교를 걱정했다.

로마서 10장을 본문으로 강의를 시작한 방동섭 목사는 유대교의 신봉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실체를 만났으로써 구원에 관

계 한다”며 “그 결과 지도자들조차 교회를 유지하는데 성도들을 헌신시키고, 성도들은 자기 의와 공로를 인정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등 세상 종교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동섭 목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열심을 내



방동섭 목사 @지재일 기자

종교적 열심만 있는 헌신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며 “구원을 받기위한 헌신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박상미 기자>

미주성산교회 방동섭 목사, 매주 토요일 로마서 학교 진행

일 아침 7시 로마서 학교를 진행한다. 구원에 관한 깊은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짚어서 열정을 다해 강의하는 방동섭 목사가 있다.

지난 토요일 열린 26번째 로마서 학교에서 방목사는 자신의 의와 공로를 앞세워 구원에

한 근본적인 시각이 바뀌었음을 설명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단은 오늘의 기독교를 세상의 종교와 같이 끌어내리려고 구원에 대해 흐리

는 차원이 달라진다”면서 “구원받았으니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열심을 내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동섭 목사는 “이런 감사와 감격의 헌신이 없는 단지

크리스천 모노드라마 ‘아이야! 이제 웃어 보렴’

광영교회서 하반기 첫 공연 시작해

유아자폐증을 앓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 이야기 ‘아이야! 이제 웃어 보렴’(문화지킴이-연출: 조재현) 연극공연이 지난 11일 남가주광영교회(담임 정우성 목사)에서 열렸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수영)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결국 자살까지 결심한 영숙(엄마)은 고통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영숙에게 살 소망을 주고 차츰 딸의 증세도 좋아진다.

제작 기획을 맡은 손영혜 권사(브릿지교회)는 “자폐아를 돌보는 가족과 엄마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평범하고 소박한 가운데 있는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남가주사랑의교회 등 7 군데서 공연했으며, 하반기 공연으로는 남가주광영교회(담임 정우성 목사)가 첫 번

째다. 정우성 목사는 “아프고 상처 난 한 가정이 주님을 만나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정들이 다

시 웃을 수 있게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 공연은 제작 연출 출연 배우까지 모두 자비량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자폐아들을 돕기 위한 모금도 진행 중이다. 올 10

월에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며, 미 동부 지역 등 교회순회 일정이 잡혀있다. 문의: 714-931-5498 <박상미 기자>



공연의 출연진 및 스태프. (좌로부터) 조재현 집사, 손영혜 권사, 강나운 권사(영숙 역), 최창수 특별출연, 이주연 어린이(수영 역) © 박상미 기자

① 차량 구입하면서 다운페이먼트가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레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판매 전문언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용차, 차종 설정, 저렴한 메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usajyk@gmail.com

#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 해외한인장로회총회 직영 신학대학

**2010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접수 및 개강일** | 접수 마감일 : 2010. 8. 13(금)  
 개강일 : 2010. 8. 30(월)

**학제** | 학사(BA) : 128학점  
 교역학석사(M.Div.) : 98학점  
 교회음악 부전공 교역학석사(M.Div. in Church Music) : 98학점=30학점(교회음악)+68학점(일반신학과목)  
 ESL: 57학점(Level test 실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 담임목사 추천서, 재정보증서(이상 본교양식) 영한판 사진(2매),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서 영문 각 1통

**특제** | ① 본교 졸업생들은 해외한인장로회(KPCA)의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② 본교에서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마친 후, 한국의 여장종택 목사고시 응시자격이 있으며, 본 교단 소속 목회자는 여장종택 목사로 이명이 가능함.  
 ③ 각종 장학금 혜택(교수, 교역자 자녀, 부부, 형제지매, 근로, 동문회, 산물회, 여성교회, 지교회, 지정 장학금 등)  
 ④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소명의 재발견

### 확실한 목회 비전

##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 찾으십시오!

**전임 교수 모집**

**지원 자격** | -해외한인장로회(KPCA)교단 소속 목사 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사  
 -현재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사는 아니나 채용 후 본교단 가입이 가능한 자  
 -구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분야 Ph.D. 소지자 중 1명  
 -영주권 신청에 걸려 사유가 없는 자

**구비서류** | -이력서 -Ph.D. 학위 사본  
 -학위 논문 표지, 목차 및 요약(abstract)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통  
 -신대원(M.Div.)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통  
 -교수 추천서와 담임목사 추천서 각 1통  
 -신임고백서(1-2페이지 분량)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e-mail 접수 가능(office@mijujangsin.org)

■ 접수 마감일 및 접수처 : 2010년 7월30일(금) 본교사무실

■ 기타 문의 : 이상명 교무처장 Tel. (562)926-1023 Ext.302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 926-1023, 4691 (ext. 300, 305)  
 홈페이지 : www.mijujangsin.org e-mail : office@mijujangsin.org 총장 김인수 박사 이사장 양기호 박사



# 김승욱 목사 “한국 교회 강점, 세계와 연결시키고 싶다”

한국성경공회, ‘바른성경’ 미주 보급한다

지난 1월 김상복 목사가 원로 목사로 추대된 후 할렐루야 교회 후임자로 누가 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난 5월 후임자로 결정된 김승욱 목사는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10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1.5세 목회자다. 퀸즈장로교회 교육전도사(1987~1992)를 거쳐 데이비스 한인교회 담임목사(1992~1999),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한국 사람으로서 모국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 이것을 항상 지켜보면서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아직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에 받은 감동이 있다. 이곳에서 자라면서 세계를 품는 마음을 갖게 됐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자원을 선교를 위해 세계와 연결시키는 다



8월 중으로 현재 사역을 마무리 할 김승욱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 교인들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주이 기자

는 없다고 본다. **-남가주사랑의교회에 부임했을 때와 지금의 비전은 어떻게 다른가.**

남가주사랑의교회는 이민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 교회에 왔을 때, 1세와 2세를 묶는 비전을 가졌다. 1세가 갖고 있는 강점과 2세가 갖고 있는 강점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요엘서 2장에는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와 청년, 자녀 세대를 이어주신다고 했다. 여러 세대가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비전을 갖는 것, 지금도 이 면에서는 비슷하다.

이곳에서는 세대를 잇는 사역이었다면, 한국에서는 대륙과 대륙을 잇는, 한국의 준비되고, 독특한 영성을 세계와 연결시키는 사역을 하겠다는 비전이다.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부담은 있다. 할렐루야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을 알아야 하고, 한국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언제 한국으로 가게 되는가.**

8월에는 남가주사랑의교회 사역을 정리한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 사임을 알렸다. 8월 후에는 3개월 간 안식하면서 쉬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싶기도 하다. 한국에는 연말쯤 들어가게 될 것 같다.

(윤주이 기자)

## 성경 보급 위한 설명회 열려

한국성경공회 ‘바른성경’ 미주 보급을 위한 설명회를 지난 6일 오전 11시 소향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성경공회 홍보위원 및 바른성경 미주 총판자 등이 참여했다. 참석한 한국성경공회 홍보위원들은 ‘바른성경’이 타 성경에 비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됐고 읽기도 쉬워 목회자들에게는 참고용 성경, 2세 자녀들에게는 읽기 쉬운 성경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성경공회 홍보위원 이학재 교수(개신대)는 “타성경과의 가장 큰 차이는 원문을 보고 번역한 것이다. 40여명의 학자들이 10년간 작업했다”며 “말라기 4장 6절에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오역된 것이고, 신명기 10장 3절에 싯딤나무가 개혁개정판에서는 조각물로 번역되었는데 원문에는 싯딤나무로 되어 있다.



바른 성경은 이와 같은 오역을 없애기 위해 원문 번역에 충실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교수는 “바른성경은 읽기 쉽게 번역되었기에 2세 자녀들에게도 적합하다”며 “일부 한국의 교단에서는 읽기 쉬운 학생본이 써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끝으로 미주 총판자 이순천 선교사는 “서점에 보급되는 10월전까지 본인을 통해 성경을 구입하면 그 수입을 교회 혹은 노회로 돌려 드릴 것을 약속한다” 말했다. 문의 : 213-503-2277

(이태근 기자)

## 한국행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선택권 있었다면 미국에 있었을 것

(1999~2004)로 사역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에는 지난 2004년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얼마 전 공동의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김 목사는 8월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 사역을 마무리 하고 이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한국으로 떠나는 소감이 어떤가.**

우선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이 크다. 나는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고, 이민 교회가 지금까지 목회의 전부였는데, 이 사역을 접는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두려움,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지만 복종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는 주님의 기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대가 있다.

**-한국가면 해보고 싶은 사역이 있다면**

리 역할을 하고 싶다. 또 한 가지는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 나라를 섬기고 싶다.

**-미주에서 목회 하면서 배웠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민자들의 아픔을 품는 것을 배웠다. 그와 함께 섬기는 목회를 배웠다. 이민 사회는 섬기면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미국의 영성을 통해서도 복음 자체를 중요시 여기고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역하는 것을 배웠다. 설교나 미국 영성을 통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다.

한국인 1.5세로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자랐다. 한 문화를 뛰어 넘어 여러 문화를 품고 안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배웠다.

**-한국 교회는 이민 교회와 다른**

**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민자로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의 장점을 갖고 서는 것은 이미 자라면서 체득했다. 한국에서 10살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은 생소한 곳이지만 그 문화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가운데 살면서 다문화의 장점을 붙잡고 설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려운 느끼지 않는다.

두번째로는 주님의 복음은 모든 문화, 세대 시대를 초월해 역사하고 압도하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순수한 복음을 붙들면 큰 문제

## 메시아닉주의 실상 그린 영화 ‘회복’

팝박 가운데서도 곳곳이 신앙을 지키며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메시아닉주(messianic Jew: 유대인 기독교도)의 실상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감독 김종철이 미주지역 성도들을 찾아왔다.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관계로 풀어낸 이 영화는 국제 모나코 영화제에서 ‘그랑프리상’을 받아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에서 관람객 20여 만 명을 동원한 화제의 영화다.

‘회복’은 과격과 유대교 청년단체가 보낸 폭탄소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미 오르티즈’ 사건,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인 가자지구에서 기독교도인 팔레스타인이 이슬람교도의 집단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일명 ‘라미 아야드’ 사건 등을 모티브로 했다.

또한 과거 2000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도들로 인해 받아야했던 학대와 고난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 예수를 증오하는 유대인들의 모

습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현지 유대인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보여준다. 예능 오락프로그램 작가로도 유명한 김종철 감독은 이스라엘 관련 저서만 수십 권에 달하는 이스라엘 전문가이다.

그는 영화 <회복>을 위해 지난 15년간 이스라엘과 중동지역을 32차례 오가며 기획했으며, 총무로 최고의 스태프들과 두 달간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현지 로케 촬영했다.

김종철 감독은 영화 개봉에 앞서 “세계적인 선교국가 대열에 올라선 한국으로서 강한 소명감을 느껴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영화 <회복>은 지난 6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미주지역에서 상영하며, 관람을 위한 교회나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단, 관람료는 자율. 문의 및 접수 : 626-200-5558 E-mail: kin-return2010@gmail.com

(박상미 기자)



## 은혜한인교회서 성남수 성화전시회

지난 6월 25일부터 화가 성남수 성화 전시회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되고 있다. 전시회에는 야곱의 꿈, 하나님의 영광, 산상수훈 등 성화 50여 점이 전시돼 있다. 화가 성남수 집사는 서울예술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재학중 다수 수상경력을 지니고 있다. 성남수 집사는 2007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과

신교학을 공부해 은혜한인교회의 선교 비전에 동참하고자 미전도종족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있다. 성남수 집사는 2010년 3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학습을 통해 현지에서 받은 영감을 작품으로 제작했다. 성남수 집사는 차기 전시회는 시편과 찬송가를 주제로 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재일 기자)

###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안로병원 봉사자 10년동안 '희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타에서 벗어났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쁜 시간들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안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안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여장을 심사곡으로 하여 상금이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명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7월 19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지시의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받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인문(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트)





유만석 총회장, 서정배 총회장, 김요섭 직전회장, 이종윤 대표회장, 양병희 상임회장(아랫줄 왼쪽부터) 등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 두번째 줄 맨 왼쪽은 박재열 예장대신 총회장대행. ©이대용 기자

## “어둠을 넘어 빛으로, 분열을 넘어 하나로”

### 제2회 장로교의 날, ‘1교단 다체제’ 공식 제안

‘성숙한 장로교회’를 기치로 지난 해에 이어 칼빈 탄생일인 7월 10일 ‘장로교의 날’ 행사가 서울 장총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 이하 한장총) 주최로 열린 장로교의 날 행사는 오후 2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찬양’ 하면서 시작, 올해 주제인 ‘성숙한 장로교회’ 선언에 이어 장로교 전통에 따른 예배와 성찬, 장로교 연합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Post Tenebras Lux)’라는 선언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분열시킨 죄를 다시 회개하고, 한국 장로교회가 서로의 차이점을 넘어서 함께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가며 화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남북한이 새롭게 하나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소망했다.

실천강령으로는 한국 장로교회가 1백 주년을 맞는 오는 2012년까지 1교단 다체제 연합 추진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단지 연합된 기구 차원을 넘어 하나의 성숙한 한 교단 장로교회를 이루기 위해, 각각 다양한 총회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교단을 이뤄내는 방식이다.

행사에는 한장총 신하 28개 교단 장과 총무 등 대부분이 참석했으며, 7천여 명의 성도들도 함께했다.

#### 양병희 목사 “장로교의 날, 부흥과 통일의 밑거름”

본 행사에 앞서 ‘감사와 찬양’ 시간에는 영안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청년들을 위해 임석순 목

사(한국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유만석 목사(예장백석 총회장)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메시지를 각각 전하고 기도회를 짧게 인도했다.

28개 교단 총무들이 자신의 깃발을 들고 입장하며 시작된 개회식에서 양병희 목사(한장총 상임회장? 준비위원장)는 “한국교회 75%를 차지하는 한장총 회원교단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연합하고 하나되는 일에 힘을 모으면 주님의 지상명령을 훌륭하게 이룰 뿐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장로교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뿌리를 내리고, 신학적 일치점을 확인하면서 향후 한국교회의 부흥과 민족 통일까지 이어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지난해 첫 대회에서 대회장을 맡았던 김요섭 목사(한장총 직전회장)는 “금년 장로교의 날을 보니 지난해보다 내용이나 회원교단 참여도가 크게 발전된 점에 더욱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주제처럼 한국 장로교회는 이제 성숙해야 하고, 교계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장로교회로 계속 성장해야 할 것”이라는 격려사를 전했다.

이밖에 이종윤 목사(대회장)가 개회사를, 전병호 목사(NCKK 회장)가 축사를 각각 전했다. 이광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최복규 목사(대회 고문), 김인식 목사(개혁육관광부)이 각각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양병희 목사가 대독했다.

이어 장로교 전통에 따른 예배가 김신규 목사(한장총 증경회장) 사회로 드러났다. 예배 순서는 입례송-예배 선언 및 기원-경배 찬송-죄의 고백-용서의 확산-주기도-공동체를 위한 기도-구약의 말씀-서신사의 말씀-성경봉독(마사 15:14)-찬양-설교-평화의 인사-봉헌기도-헌금-축도 등으로 이어졌다.

#### 이종윤 목사 “선한 행실로 성숙한 장로교 드러내자”

‘성숙한 교회, 우리 장로교회’를 제목으로 설교한 이종윤 목사는 “장로교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인들이 요한 칼빈 목사님의 501회 생신일인 7월 10일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성숙한 장로교회는 선함이 가득한 교회, 지식이 가득한 교회, 서로 권하는 교회”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국 장로교단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노문길 목사),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정봉기 목사), ‘국내외 선교를 위하여(변우상 목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김양원 목사), ‘이단사 이비로부터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김학수 목사)’ 등을 놓고 주제기도를 한 후 최능력 총회장(합동총회)이 평화의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폐회식에서는 대회 선언문 및 제안이 낭독됐고, 이종윤 목사 인도 아래 28개 교단 총회장과 총무가 등단해 찬송을 합창하고 서로 일사단결의 감동의 시간을 마련했다. 대회는 양병희 목사의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이대용 기자)

##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 세부계획과 순서자 발표

제42회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대회장 황우여 국회조찬기도회장, 준비위원장 박성철 국가조찬기도회 회장)가 ‘국민화합, 경제번영 그리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제42회 국가조찬기도회의 세부 계획과 순서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레싱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박성철 장로, 부회장 노승숙, 박래창 장로와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황우여 의원, 총무 김기현, 강성중 의원, (사)대한민국

트라(지휘 양진모)의 연주, 햄시바 찬양단(단장 박희봉)의 합창, CTS 어린이 합창단(지휘 박명희)의 합창, 테너 배재철 교수의 독창과 교수중창단의 중창이 이어진다.

2부 기도회는 김기현 국회의원의 사회로, 개회사 황우여 국회의원(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최규식 국회의원(민주당 기독교신회장)의 개회기도가 이어지고 이애란 교수(탈북자 1호 이화여대 박사), 박래창 장로(한국장로신문사 사장)의 신?구약 성경봉독이 진행된다. 서울장로성가단(단장 최영일)의 특별찬양 이후 강남교회 전병금 목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장)가 모든 참석자와 합심기도를 하고, 이어서 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의 성시낭송 순서가 진행된다.

또 뮤지컬배우 이태원 교수가 찬송가 중 한 곡을 참석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립인식 목사(노랑진교회 원로)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친다.

준비위원장 박성철 장로는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모두가 하나 돼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 기도회를 통해 사회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회장 황우여 장로는 “국가조찬기도회는 전 공직자와 전 기독교인이 함께 나라를

### 7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설교는 전병금 목사

가조찬기도회 장현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장현일 사무총장은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이번 기도회는 22일 오전 7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정치, 경제, 종교 등 국내외 지도자를 비롯해 특별히 장애인을 초청한 가운데 목회자를 포함, 3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극동방송 김혜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 식전행사는 명지홀리챔버 오케스

트란스(지휘 양진모)의 연주, 햄시바 찬양단(단장 박희봉)의 합창, CTS 어린이 합창단(지휘 박명희)의 합창, 테너 배재철 교수의 독창과 교수중창단의 중창이 이어진다.

2부 기도회는 김기현 국회의원의 사회로, 개회사 황우여 국회의원(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최규식 국회의원(민주당 기독교신회장)의 개회기도가 이어지고 이애란 교수(탈북자 1호 이화여대 박사), 박래창 장로(한국장로신문사 사장)의 신?구약 성경봉독이 진행된다. 서울장로성가단(단장 최영일)의 특별찬양 이후 강남교회 전병금 목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맡았다. 이후 특별기도 시간에는 이병석 국회의원(한나라당 기독교회 회장)이 ‘대통령과 국가발전’을 위해,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경제번영과 민족화합을 위해’, 이철휘 제2작전사령관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각각 기도한다.

특히 ‘대통령과 국가지도자, 국민화합과 위기극복,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라는 주제로 박성철 장로(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

위해 기도하는 날’이라며 “국내외적 고난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42회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는 21일 오후 7시부터 오윤교회에서 기도회를 위해 내한한 외국인사들과 준비위원회, 국회조찬기도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평화음악회를 진행한다. 또 23일 오전 7시부터 국회극장에서 국제조선조찬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대용 기자)



국가조찬기도회 기자회견. 왼쪽부터 순서대로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장현일 사무총장, 박래창 부회장, 노승숙 부회장, 박성철 회장, 국회조찬기도회 황우여 회장, 김기현 총무, 강성중 총무.

# 주택 차압/퇴거 중단

-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
- 은행에서 Notice of Default, Foreclosure Intention, Trustee Sale 통보 받은 분
-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 숏 세일(Short Sale) 진전이 없어 불안하신 분
- 이미 융자 조정, 숏 세일 시도했었으나 실패해서 차압이 임박한 분
- 숏 세일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시 집을 지키기로 결정하신 분
- Foreclosure(차압)이 끝나고 Eviction(퇴거 명령)을 기다리고 계신 분
- 세컨 홈, 4 Unit, APT, 상업용 건물, 교회...
- Rent로 살던 집이 숏세일이나 은행에 차압(Foreclosure)이 되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분

## 융자 조정(후불, 미주 전역)

**즉각 차압 중단**  
**즉각 퇴거 중단**

- 현재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으나, 크레딧 손상 없이 페이먼트를 낮추고 싶은 분
- 변동 이자 페이먼트(Option Arm)를 내고 있어서 원금이 늘어나 불안한 분.
- 30년 고정 프로그램으로 재융자 하고 싶으신 분(NO Tax, Bad Credit OK)
- Obama 법에 의해 융자 원금 삭감 가능 (예: 2차 론의 경우, 18만불에서 2만불만 내고 16만불 당감 받음, 사무실 방문시 모든 성공사례들을 직접 확인시켜 드립니다)

**NO...NO Short Sale** : 저희는 절대로 숏 세일을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Paul Lee (폴리)  
3400 W. 6<sup>th</sup>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달리나, MBC 건물) 213-248-9297

## 2010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 월드 크리스찬 신학대학/대학원

World Christian Theology & Seminary

이 불경기에 아직도 비싼 학비를 내고 공부하십니까?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무료)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정규 신학 대학으로 초대합니다.**

대학부(B.A)	대학원(M.Div)	박사원(Doctor)	통신 학부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입학자격: 4년제 대학	입학자격: 석사 학위 소지자	(Department of Home Study) 대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통신으로 수업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학부입니다. (12주제 체계의 30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요심과목: 신학과, 종교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선교학과, 기독교 상담학과	요심과목: 신학과, 종교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선교학과, 기독교 상담학과	요심과목: 신학박사, 종교 교육학 박사, 상담학 박사, 선교학 박사, 영예 박사 수여도 가능합니다 (특별 상담 가능)	

#### 본교 특징 (수시입학 가능)

1. BPPVE와 ABHE 인가를 받은 정규 대학교입니다.
2. M.Div 졸업자는 본 교단에서 목사 고시를 거쳐 목사 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 대학부 만큼 강력 장학금을 드립니다.
4. 워킹유지 장학금 지원.
5. 여학생이 지원하는 학생 장학 지원.
6. 선교사(역사, 상역) 기드원장 이수과목 수료후 자격증 발급 및 사역 지원

#### 구인모집

◆ 학교 행정업무 보조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 및 컴퓨터 능한자 (40세 미만 환영)

#### 교수 채용 공고

아래와 같이 경력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교수님들을 초대 하고자 하오니 많은 유모를 바랍니다.

신학대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 상담학  
 음악대학: 음악이론, 지휘법, 건반악기, 작곡  
 선교대학: 선교학, 기술신과(의료), 건강증진, 신문, 장애인선교, 특수목회대학원: 교도소선교, 형무소선교, 경찰선교, 불어선교

지 역: 워싱턴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수여자로 세계교단 이상  
 제출서류: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추천서 / 제출시간: 2010년 8월 20일까지  
 제출처: World Christian University 2715 Ellendale Pl., LA, CA, 90007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함)

학교 (323)734-0227 미국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단 (323)734-2300  
 교무처 직통 (213)725-3007, (323)734-4599 / 2716 Ellendale Pl., LA., CA 90007



# 마태복음 20장의 불공평, 그것이 천국의 경제

마태복음 20장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문제는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한' 행동에서 비롯되는데, 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과 이보다 늦게 포도원에 온 일꾼, 심지어 해가 질 무렵 포도원에 도착해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 모두에게 샅으로 1달란트를 준다. 그것도 맨 나중에 온 품꾼부터.

만약 포도원을 현대의 기업이라고 가정하면 이 성경의 비유는 먼저 온 품꾼, 즉 경력이 오래된 노동자들에게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로 변한다. 오랜 세월 일한 노

고, 동시에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가 현대 기업에서 일어난다면'이란 도전적 발상이었다. 이에 대한 이 교수와 이 목사의 대답을 요약? 정리했다.

“기업인이 먼저 통령 깨야 하나님 나라 정신 구현”

이재철 목사: “어느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던진다. 물론 예수님을 울무에 빠지게 할 의도였다. 그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큼니?’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모두가 잘 알듯,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곧 성경의 핵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기업은 이 성경

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총이라는 것이다. 이게 총론이다. 하나님 나라의 총론. 그런데 이 안에는 두 개의 각론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동질의 양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비록 포도원에 늦게 왔지만 그 역시 먼저 온 품꾼과 비슷한 처지에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먼저 온 자와 동일하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먼저 온 자와 같은 샅, 곧 자비를 베풀었다. 기업이 만약 이 성경적 원리를 깨닫는다면



이재철 목사(좌), 이어령 박사(우)

이는 비단 나와 선임 부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백주년기념교회에서 사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

이유는 마태복음 20장의 정신을 스스로 실천하기 위함이다.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 혹은 종이 위 문자로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 혹은 기업을 소유한 기업주가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먼저 깬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

“돈 아닌 생명 증식시키는 '생명 자본주의' 만들어야”

이어령 박사: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를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품꾼에게도 일찍 온 품꾼과 같은 샅을 준 것은, 그들의 일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찍은 품꾼은 오래 일하다 보니 어느새 맹목적으로 일을 하게 됐다. 하지만 늦게 온 품꾼은 자신을 불러 준 포도원 주인에 대한 감사와 자신에게도 일이 주어졌다는 감격이 겹쳐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에 임

했을 것이다. 일에 대한 고마움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모태신앙인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하지만 늦게 하나님을 믿어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기업에서도 그렇다. 비록 늦게 고용됐다 할지라도 그가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기업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의 생산성이 맹목적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기업이 이것을 알면 결코 악덕기업주가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을 잘 대우하고 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생산성이 높아져 큰 이윤이 생기는데, 굳이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해 악덕기업주 소릴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기업주는 노동자들 로하여금 빨리 일터로 나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젊었을 때 기업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과 생각했다. 사회에 약적인 존재로 여겼다. 그래서 기업인들과는 점심도 같이 먹지 않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나쁜 것은 신의 질서를 파괴하는 노동, 즉 마지못해 하는 노동. 다른 이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노동이지 하나님의 종으로 일 자체를 신령한 것으로 여기며 열심히 일하는 자의 노동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 개념을 자본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본에 투자하고 자본을 증식시키려 애쓴다. 그러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을 가진 것만이 증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돈이 많아진다는 것, 돈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며 거짓이다. 자본주의 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일어난 세계금융위기는 이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만약 크리스천이 자본에 투자하는 기업인이 된다면 물질이나 돈을 자본으로 삼지 말고 생명과 사랑을 자본으로 삼아 그것을 증식시키고 번져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자본주의'다. 한국에 기가막힌 말이 있다.

'살림살이'라는 말. 살림을 해서 살게 한다는 의미다. 영어로 경제는 이코노미(economy)인데, 짐이라는 뜻이다. 이 경제가 세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최근 단순 '생산'이 아닌 '생식'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무조건 자본주의를 비판할 게 아니라 자본의 또 다른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든다면 모든 기업인들이 당당하게 돈을 버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진영 기자〉

## 이어령 박사-이재철 목사, '경제' 주제로 대담

동자와 이제 막 기업에 고용된 젊은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보다 먼저 이 기업을 과연 기업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까.

8일 서울 합정동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선교기념관에서 열린 양화진문화원 목요강좌의 주제는 경제였고, 이 주제를 논할 이어령 박사(양화진문화원 명예원장)와 이재철 목사(백주년기념교회) 앞에 가장 먼저 던져진 질문은 '성경적 기업이 가능한가'였다. 낮아짐, 희생, 양보를 강조하는 성경과 이윤, 경쟁, 쟁취를 강조하는 기업이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의 핵심을 구현하기 위한 통로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이 이윤 창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그렇기에 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비인격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돈을 추구한다.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며, 품꾼은 곧 구원받은 우리들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축복

면 현대의 기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기업이 될 것이다.

혹 목사라 이런 이상적인 말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나는 대학교 4학년 끝 무렵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 지금까지 꼭 41년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담임목사로 내가 받는 월급은 405만원이고 부목사들 중 가장 선임이 받는 월급이 395만원이다. 그의 나이는 46살이다. 18세 이상, 모두 공부하는 자리에 있는 네 명의 자녀를 둔 내가 초등학교 자녀 두 명을 둔 그보다 10만원을 더 받는다. 그러니 실제 월급은 그가 더 많은 셈이다.

## “바이블 엑스포 성공적 개최 확신, 8월 27일 오픈”



더바이블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12일 송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류재광 기자

행사 현장 공개하고 계획 발표...  
(주)우림건설이 시공 담당

8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THE BIBLE EXPO 2010(더 바이블 엑스포)'은 지금껏 한국교회에서 전례가 없는 대규모 행사로 기획되고 있다. 때문에 기대도 크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준비 과정에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저작권 소송에서 승

소하면서 준비에 탄력을 받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 하철환)는,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을 확신했다. 이들은 12일 송도의 행사 현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교계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철환 사무총장은 “소송 문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으나 소송도 승소하고 모든 준비도 잘 되고 있다”며 “때문에 당초 7월 중순 개

막할 것으로 계획했던 행사도 다소 연기됐으나, 이제 열심히 일해서 8월 27일까지는 정확히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진 본부장 역시 “제작에 참여하는 중국 기술자들은 모두 중국 문화부에서 인정한 최고 기술자들”이라며 “설계와 모든 공정은 관련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우수한 한국인 기술자들이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공사로서 공사, 총괄 감리업무 및 컨설팅 등을 맡는 (주)우림건설에서 심영섭 회장과 대표이사 및 임원진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했다. 우림건설 왕남균 이사는 “이렇게 귀한 행사 시공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모든 구조물이 완전히 준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매문의: 02-541-1100/www.bibleexpo2010.com 〈류재광 기자〉

www.seattleonnuri.com

## 담임목사 청빙 공고

워싱턴주 Lake Forest Park에 위치하고 있는 시애틀 은누리교회 (미국 C&MA 교단 소속)에서는 지난 16년간 사역을 담당해 오신 김재은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

- ①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② 전일목회 경력 5년 이상 퇴사는 분
- ③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양식은 은누리교회 website, www.seattleonnuri.com에서 download

최근 인물 사진 1장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포함. (2~4 page)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설교 2 회분 (CD, DVD, 또는 Website Link)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장소:**  
Onnuri Church Attn: PSC Chair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1710  
Tel: 206-371-5934 (PSC Chair)  
Email: psconnuri@gmail.com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서류 제출 및 문의 가능)

**제출 기한: 2010년 9월 30일**

## GLOBAL VISION BANK

###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홍정길 목사, “만선(滿船)보다 귀한 축복” 메시지 전해



할렐루야 대성회가 시카고 지역 성도들 5백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다. ©김준형 기자

# 시카고 할렐루야 대성회, 5백여명 참석 대성황

시카고 교계 최대의 연합행사 할렐루야 대성회가 7월 9일(현지 시각)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2박3일간 열렸다.

첫날 그레이스교회에서 열린 집회에는 본당의 500석과 좌석 사이에 임시로 놓은 보조좌석까지 가득 찼고 일부는 본당 밖과 체육관에서 모니터를 통해 예배를 드렸다. 주최측은 행사가 시작된 후에도 성도들이 계속 오자 서둘러 본당 안에 보조좌석을 놓았지만 그마저 부족해지자 체육관까지 모니터를 설치했다.

성도들의 참여만큼 목회자들의 참여도 뜨거웠다. 사회를 맡은 이범훈 목사, 기도를 맡은 정길영 목사, 성경봉독을 맡은 주인돈 신부, 환영사를 맡은 신광태 목사, 헌금 기도를 맡은 김귀안 목사, 축도를 맡은 김광태 목사 등 식순을 맡은 목회자들은 물론, 식순을 맡진 않았지만 순수한 연합에 의미를 갖고 참석한 서장권 목사, 장춘원 목사, 원종훈 목사,곽오경 목사, 최문선 목사 등 현지 목회자들도 뒷자리에 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강사 홍정길 목사는 “만선(滿船)보다 귀한 축복”(눅 5:1-11)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홍 목사는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 일에 능숙했던 베드로가 밤새 헛수고를 한 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목수 출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며 “주님을 믿는 자에게 만선의 축복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 목사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가”라 묻자, 곳곳에서 “네” 혹은 “아멘”이라는 대답이 들렸다. 홍 목사는 곧 “주님의 무엇을 믿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믿는다는 말은 곧 그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요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곧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의 핵심이란 뜻이다. 홍 목사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선의 축복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목사는 “우리는 여기서 만선보다 더 귀한 축복을 발견하게 된다”고 설교의 흐름을 바꾸었다. 그가 말한 만선보다 귀한 축

복은 베드로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 나는 죄인이므로 이다 고백하는 ‘나를 만나는 축복’,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만나는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홍 목사는 설교를 맺으며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만나고, 사명을 만나고자 하시는 분은 일어나 서시라”고 청했다.

홍 목사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섬기는지 묻고 있지 않다. 여러분이 오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라고 덧붙혔다. 이어 홍 목사는 일어난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한편 첫날 집회에서는 개혁교회의 난타팀이 헌금시간동안 신나는 난타 공연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사회를 맡은 이범훈 목사는 축도에 앞서 “내일 집회에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한 명씩 더 데리고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 2010 코스타 “복음, 민족, 땅끝”

미주 한인 유학생들의 복음주의 청년운동 코스타가 올해도 어김없이 휘튼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복음, 민족, 땅끝”이다.

5일은 “코스타로의 초대”, 6일은 “복음”, 7일은 “민족”, 8일은 “땅끝”, 9일은 “세상 속으로” 등 매일마다 다른 주제 아래 성경강해, 선택 세

미나, 저녁 집회가 진행되며 유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시간동안 어린이 코스타, 유스 코스타가 휘튼대학교 내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매일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서 열리는 “코스타의 무대, 코스타의 현장”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문화 공연과 간증으로 구성돼 있어 다소 빠듯한 코스타 일정

에 활력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성경강해를 맡은 홍정길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며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이 구원을 진정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코스타들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굳건히 서길 바란다”고 도전을 던졌다.

(김준형 기자)

##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은 없습니다만”

### 살렘교회 교육관 봉헌예배 드려

2009년 8월 17일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가 교육관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파란 풀밭에 첫 삽을 뜨던 날이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그때 김태준 담임목사는 그 비를 “은혜의 단비”라고 불렀다. 김 목사에 “이 불경기에 굳이 교육관 건축을 해야 하나”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던 것 같다. 그 꿈은 살렘교회의 차세대들이 신앙을 전수받는 것뿐 아니라 한인교회로서 살렘교회가 한 인교계를 더욱 섬기는 것, 삼버그시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었다.

건물을 짓는 데에는 11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꿈을 꾸는데 15년이 걸렸고 이 꿈을 구체화시키는 데에는 5년이 걸렸다. 이제 그 꿈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7월 11일 교육관 봉헌예배는 말 그대로 “잔치”였다. 예배에서는 북일리노이연합회의 정희수 감독이 직접 참석해 설교했다. 정 감독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백성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만나의 기적이 살렘교회와 함께 했으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 감독은 “건축에만 그치지 말고 이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 바란다”며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이 성전



김태준 목사가 예배 중 갑자기, 기공식 때 땅을 처음으로 파던 삽이라며 삼을 들고 나왔다. 그는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감격했다.

을 채워가며 살렘교회를 통해 주변 사회가 변화되고 시카고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날 예배에는 정 감독 외에도 연회에서 오스카 카레스코 감리사, 김옥연 감리사, 이종민 회중개발국 총무가 참석했고 조은철 목사, 현 5대 담임인 김태준 목사에 앞서 3대 담임이었던 정은혜 목사,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 목사, 글렌브룩교회 백영민 목사, 샘물교회 박미숙 목사, 배리튼양의 문교회 우민희 목사, 올랜도광교회 이영태 목사 등 다수의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회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강신용 목사, 정석환 목사(연세대 교수), 이철원 목사(엑스터시교회), 김순철 목사(시카고기독교방

송국) 등 교단 밖의 인사들도 직접 참석해 축하를 건넸다.

본당 안에는 빼곡히 150명이 들어갔고 본당 밖에 둔 50개의 보조좌석이 가득 찼다. 살렘교회는 본당과 연결되는 교육관 로비에도 보조좌석 50개를 놓는 등 하여튼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에 보조좌석을 놓았고 총 3백명이 이날 살렘교회의 교육관 건축을 축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봉헌예배의 백미는 역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양해바랍니다”라는 김 목사의 말이었다. 김 목사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위한 건물을 짓는 곳들이 시카고에 많다. 우리는 건축을 잘 마쳤지만 아직 건축하고 있는 단체들을 위해 우리가 아주 작지만 정성스런 기금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선물을 준비 못했으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살렘교회는 장애우를 위한 밀알 복지관 건립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밀알선교단 복지관건립추진위원장 김인자 권사에게, 또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샘물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샘물복지관 건립을 위해 샘물교회 박미숙 목사에게 각각 격려금을 전달했다.

약 2시간에 걸친 봉헌 예식이 모두 끝난 후, 밖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살렘교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아니, 은혜의 폭우가 쏟아지려나 보다.

(김준형 기자)

## 시각장애우 하경혜가 노래한 하나님

### 제16회 밀알의 밤에서 찬양 및 간증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니 주님만이 알고 계셔” 시각장애우 CCM 가수 하경혜가 제16회 시카고 밀알의 밤에서 찬양한 노래 가사 중 일부다.

생후 7개월 때 홍역을 앓고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시각장애를 갖게 된 하경혜는 7살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을 알리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부축을 받고도 더듬거

리며 천천히 무대에 섰지만 노래할 때만은 청중 가운데 누구와도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그 장애 덕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처럼 노래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풀어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며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밀알복지관 기금 마련을 위해 밀알선교단이 개최한 이번



CCM가수 하경혜가 복음장로교회에서 열린 밀알의 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밀알의 밤에는 하경혜와 함께 복음장로교회 성가대, 시카고 여성합창단, 시카고기독교합창단이 노래로 뜻을 함께 했다.

(김준형 기자)

지난 1700년 동안 교회가 잘못 사용된 선교의 개념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선교의 원형을 회복하여 교회가 참으로 가야 할 진정한 선교의 길을 제시한 혁명적인 저서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가 함께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 〈저자 방동섭 소개〉

저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총신대학교를 거쳐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와 그랜드라피즈 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하였으며, 텍사스의 Refa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에서 15년간 성경신학, 조직신학, 선교신학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여 저자가 꾸준히 시도해 온 것은 신학과 선교학의 통합이었다. 저자는 그동안 십자가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상임(1982), [선교가 우리의 삶인양](1992), [명성을 매달다](2003), [위험담담] 등을 집필한 바 있다.



### 왜 이 책이 중요한가?

-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민인(民人)을 주상했는데 이 책은 민인(民人)을 돌외치고 있다. 선교의 종교개혁적 지직이라고 불려서 지나감이 없다.” - 유망지 박사(복합교회연구원(MCPC) 원장)
- “신앙과 비신앙 사이의 경계를 넘어, 인종을 초월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는 길을 위한 엄청난 영적 에너지 제공해 줄 것을 확신한다.” - 이강선 선교사(Global Vision Foundation 대표, 감리교 세계 시니어선교사회 회장)
- “선교의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책은 지금까지 한국 신학계에 없었다.” - 김성욱 박사(총신대학교 대학원 교수)

구입처: 생명의 말씀사

생명의 말씀사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리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 김욱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소망교회**  
 담임 : 김재울 목사  
 주일기도회 오전 9: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 진영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성경공부: (화)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수) 오전 10:3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중신교회**  
 담임 :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더교회**  
 담임 :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나리교회**  
 담임 : 박종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흥장로교회**  
 담임 :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동양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4부예배 오전 12:15  
 2부예배 오전 8:30 5부예배 오후 2:30  
 3부예배 오전 10:15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ic.org

**들로스교회**  
 담임 :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화-토)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1부가리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EM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 F. (213)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삼성장로교회**  
 담임 :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 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 김수철 목사  
 찬양-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온터는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세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 정 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일) 오전 6:00  
 2부EM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찬양예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쉽있는교회**  
 담임 :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995-2868 / F. (714)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성장로교회**  
 담임 :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새영교회**  
 담임 :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1:00 (토) 오전 7:00  
 셀모임 오전 7:00(토)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 (714) 900-1008

**은혜한인교회**  
 담임 :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 안홍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 이충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배주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90005  
 T. (213)249-9191 / F. (213)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축복교회**  
 담임 :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 이충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 수요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헤브론교회**  
 담임 :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45 수요일침례서트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 (323) 735-8677 / F. (323) 735-960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위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할렐루야대회 첫날, 콜든센터 가득 메워

김삼환 목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2010 대뉴욕복음화 대회 막이 올랐다.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퀸즈 칼리지 콜든센터에서 열리는 할렐루야대회 첫날, 대회장은 청중들로 가득찼다.

신현택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세상엔 대안이 없다. 대안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를 만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

어나면 가정과 사회와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며 회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것



김삼환 목사

을 당부했다. 올해 대회는 전도보다는 믿음을 견고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강사 김삼환 목사는 ‘성령으로 일어나라(행 1:6-8)’ 설교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라.”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갖고가 해결하라.”고 설교했다.

〈윤주이 기자〉



뉴저지한인목사회 출범

제 1회 회장단 취임예배 개최

1972년 교역자회로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가 시작된 지 38년 만에 뉴저지한인목사회가 분립했다. 이에 뉴저지한인목사회는 제1회 회장단 취임예배를 13일 오전 11시 뉴저지 성은장로교회(담임 김정문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취임사를 전한 김정문 목사는 “독자적인 목사회를 세우게 후원해주신 뉴욕목사회에 감사하다.”며 중간 역할을 감당한 박정희 목사(뉴저지목사회 협동 총무)와 목사회 임원 및 취임식을 도운 성은장로교회 당회 및 교인에게도 감사사를 전했다.

이어 김 목사는 “모든 것이 때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린다.”며 “뉴저지한인목사회는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의 본을 따르고 오늘의 변화에 적응하며 형님보다 더 나은 아우로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또한 뉴저지한인목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목회자·평신도 협의회와 상호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할 것이다.”며 “디모데후서 4장 9절

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강한 심령의 연민을 가지고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한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알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역사가 목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안다.”고 덧붙였다.

취임식 사회를 맡은 강세대 목사(부회장)는 “뉴욕이나 필라목사회는 20-30년 전 출발했는데 뉴저지는 좀 늦게 시작한다.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성경 말씀이 꼭 이루어질 줄 믿고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친교를 나누며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한인사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교회가 공헌할까 논의하는 모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 축사한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김종덕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뉴저지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기쁨으로 인도할 줄 믿는다. 1대 개척하는 목사님 같은 마음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양춘길 목사가 선교 여행차 참석하지 못해 대신 축사한 부회장 유병우 목사는 “김정문 목사님 중심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고 전했다. 뉴저지한인회는 “20만 뉴저지 한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아가 260-70 교회가 뉴저지의 주류 사회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 뉴저지를 복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날 임극 회장은 참석하지 못해 다른 임원이 축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말씀을 전한 정성만 목사는 ‘복 있는 사람’(요한계시록 1: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계시록을 풀다 이단이 많이 나왔다고 위협하다며 요즘 사람들은 덮어둔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만큼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 곳이 없고 그 말씀을 보고 또 보면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진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박찬순 목사(총무)의 인도로 황금환 장로(뉴저지교협 부회장)가 기도, 정성만 목사(전임 교협회장)가 말씀, 윤명호 목사(전임 교협회장)가 축도했다.

2부 취임식은 강세대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정성수 목사(전임 교협회장)의 기도, 임원 소개, 위촉장 수여, 김용의 목사의 오찬 기도도로 진행됐다.

〈오상아 기자〉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총회장 류복현 목사



류복현 목사

‘소통’에 힘쓰겠다

모님, 대의원들에게 감사하다. 공약 사항을 잘 실천하겠다.

공약 사항은 무엇인가.

내년이면 총회도 3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자 노력했다.

첫째, 지방회와 총회와의 ‘소통’이다. 남침례교 한인교회 협의회 안에 850여개의 교회가 있다. 많은 교회들과 총회 사이에 대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는 지방회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자 한다. 지방회를 통해 개교회들이 원하는 목소리,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지방회에 총회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코자 한다.

둘째, 은퇴, 원로 목사를 섬기는 일이다.

총회가 양장서 은퇴, 원로 목회자의 총회 등록비를 면제하고, 점진적으로 총회에 참석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

셋째, 미자립 교회의 영성 운동을 위해 자비량 부흥회를 실시하고자 한다. 총회 목회자들이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을 하

고 싶다. 넷째, 총회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총회, 신바람 나는 총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참가한 이들이 ‘참 잘 왔다.’고 말하는 총회를 만들겠다.

간담회는 언제 갖는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7월 중에는 열 계획이다. 8월에는 실행위원회가 있다. 간담회를 통해 대화한 후 실행위원회를 가져야 한다. 간담회가 회장 취임 후 첫 사업이 될 예정이다.

총회가 가진 잠재력은 무엇인가.

협동정신이다. 침례교는 힘을 합하면 크다. 총회라는 조직이라고 해서 의견이 하향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교회가 내는 상회비 명칭도 ‘협동 선교비’다.

총회가 개선해야 할 점은.

총회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이 개선되어야 한다. 회원 교회가 총회 회비를 내야 한다. 침례교는 총회 회비를 내지 않아도 대의원권을 준다. 회비도 자율적으로 내는 것인데, 회원 교회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

〈윤주이 기자〉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www.sbc.net)는 지난달 14, 15일 양일간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총회를 열었다. 한인교회 총회는 제29차 총회를 가졌다. 이에 류복현 목사(킬린한인침례교회 담임)가 총회장에 당선됐다. 수도침례신학교 신학과, 디콘칼리지세미너리를 졸업하고 1984년부터 목회를 시작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킬린한인침례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그는 교회를 안정, 부흥시키며 목회하고 있다. 그동안 서기, 실행위원, 제1, 2 부총회장 등을 역임하며 총회를 섬겨왔다.

소감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지지해주신 모든 목사님과 사

‘나눔과 기쁨’ 뉴욕 지부 출범

‘나눔과 기쁨’ 운동이 뉴욕에서도 시작된다.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해 왔던 서경석 목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시작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실적에 따라 매달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게 됐고, 그 결과 교회도 부흥하는 열매를 보게 됐다. ‘소외된 이웃이 없는 세상 만들기’를 모토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눔과 기쁨’의 서경

석 목사가 뉴욕을 찾았다. 효신장로교회에서 12일 나눔과기쁨 설명회를 가진 그는 이 운동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실천하고 교회가 변화할 수 있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뉴욕에서는 김수태 목사가 천거를 받아 대표를 맡게 됐다. 김수태 목사는 “뉴욕에 맞는 봉사 방법을 찾고 함께할 수 있는 이들을 찾아 구체적으로 조직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윤주이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권정 장로 KCBMC 회장, 은종국 장로 수석부회장 선출



제15차 KCBMC,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 사명 재확인

권정 장로 KCBMC 회장, 은종국 장로 수석부회장 선출

제15차 북미주 한인 CBMC 대회(회장 권정, 이하 KCBMC)가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메릴랜드에서 열렸다. '축복의 통로 된 리더'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KCBMC 각 연합회장 및 지회장 및 회원들과 한국, 유럽, 중국, 일본 등지에서 25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올해 KCBMC 총회에서는 신임 임원 선출이 있었다. 신임 KCBMC 회장으로는 시애틀 권정 장로가, 수석 부회장으로는 은종국 장로(연합장로교회, 애틀랜타 한인회)가 선출됐다. 신임 권정 회장은 "지금까지 수고하신 선배 회장님들의 뒤를 이어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KCBMC의 발전을 위

해 섬김의 정신으로 사역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회의를 통해 기존 5개 지회를 동북부 연합회, 동부 연합회, 북가주 연합회, 서북부 연합회, 남가주 연합회, 중부 연합회, 남부 연합회, 서부 캐나다 연합회로 세분화하고 창립 지원팀, 차세대 후원팀, 해외 사역 후원 팀을 신설해 지회 확장과 발전을 도모하기로 결의했다.

지회 창립 지원팀은 현재 50여 개의 지회를 2년 내 80개 지회로 확장하기 위해 창립과 성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해외사역 후원 팀은 중남미와 일본을 지원해 중점적 발전을 꾀하기로 했고, 차세대 후원 팀은 정책적으로 크리스천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크리스천 사업가들로 육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차인홍 교수, 김승욱 목사, 크리스천 사업가 bill jop의 특강이 이어졌고 안효열, 오질용 사장 등 북미주 한인 CBMC 내 강사진들의 주제별 강의가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KCBMC 상임이사인 신호범 위싱턴 주 상원의원이 참석해 총회를 격려했다.

KCBMC는 북미주 지회 확장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과 네트워크 하며 비즈니스 현장에 복음을 심고 선교 사역 후원에 적극적으로 펼쳐가기로 뜻을 모았다.

CBMC는 기독교실업인들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일터에서 성경적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전도와 양육으로 일터에서 배출된 사역자들이 일터를 변화시키는 것을 핵심사역으로 삼고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질문과 경청, 칭찬으로 스스로 인식하도록 도와야

21세기는 코치형 리더십이다

최근 개인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 하는 코칭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상담이 내담자의 심리에 집중하는데 비해 코칭은 사람들에게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깨닫도록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코칭은 질문과 경청, 격려와 통찰을 통해 리더십을 개발하고 관계 회복과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인재 개발 기법이다.

20세기형 리더가 직원들의 미숙함과 부족함에 기초를 둔 관리자형이라면, 21세기형 리더는 파트너십에 관계를 두고 인식을 통해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코치형 리더다. 교계에서도 기존의 신앙 교육 방침에 코칭을 적용해 자발적 신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데 있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요구 되고 있다.

시애틀 YCBMC(회장 윤원영)는 본국에서 코칭 전문가 손꼽히는 안효열 코치를 초청해 21세기 크리스천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시애틀



이피엘 코칭 대표 안효열 코치. ©김브라이언 기자

형제교회에서 열린 이번 강연에서 안효열 강사는 경청과 질문, 격려와 칭찬에 대해 강조했다.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한 안 코치는 코칭이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며 긍정적 태도와 경청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고 정의했다.

안 코치는 "코치는 사람들을 드러난 성과가 아닌 과정으로 평

가해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이 아닌 미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경청과 칭찬으로 스스로 해답을 발견하고 일어설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신앙 역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리더는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진실 된 의도를 가지고 격려와 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도들의 사명을 찾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코치는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코칭의 시작은 '경청'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칭찬의 중요성을 들며 칭찬 할 때는 △이름을 부르고 증거를 대며 칭찬할 것, △칭찬할 일은 즉시 칭찬할 것, △구체적 과정을 인정하며 평생 잊지 못하게 진심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안효열 코치는 이피엘 코칭 대표, CBMC 중앙강사, 한국코치협회 감사(중소기업코칭포럼위원장), ICF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2010 북가주선교대회, 미주 각 지역 관심 속에 진행

LA, 워싱턴, 뉴욕, 텍사스, 시카고 등 미주 각 지역 등록신청

2010년도 제3차 북가주선교대회(Mission California) 선교 대회는 북가주 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 진행되고 있다.

민찬식 목사(북가주선교대회 준비위원회 총무, 샬롬교회 담임)는 "현재까지 북가주는 물론 LA, 워싱턴, 뉴욕, 텍사스, 시카고, 샌디에이고, 오레곤 등 여러 미주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 선교대회에 신청해주셨다"고 밝혔다.

민목사는 "각 선교단체도 부스를 만들지만, 30여개국에서 온 각 선교사들도 소속 선교단체를 알리면서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국가선교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가주 한인교회 50개 연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0개 교회가 협력하게 됐다"며 "초청된 선교사들을 북가주 각 한인교회 주일설교로 초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선교사들의 숙박을 각 한인교회들

이 협력하고 있다.

선교사들에게는 이번 기간 동안 휴식하면서 사역을 정리하고 배움의 시간도 갖고 도전도 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북가주 선교대회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단12:3)'라는 주제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임마누엘 장로교회(손원배목사,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에서 열린다.

(임형진 기자)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국민들에게 리더십 선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당부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2020년이 되면 한반도에 가장 민감한 시점이 도래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예견해야 하며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일, 시애틀 한인회가 주최한 시애틀 모금의 밤에서 특강을 맡은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다음 정권과 다음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강연회를 펼쳤다.

김 고문은 북한의 권력 체제 변화에 따른 위기, 중국의 급부상, 세계 경제의 단일화 움직임을 소개하며 한반도는 어느 때 보다 훌륭한 리더십을 뽑아야 하는 중요한 시

점에서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야권의 단일화와 여권의 분열화를 설명하며 지난 지방선거의 동향이 대선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국민들이 리더십 선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고문은 10년 안에 불어 닥칠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북한 권력체제의 변화를 들고, 이에 따른 북한 지도층 내에서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심각한 경제 상황과 더불어 시장 세력이 북한 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면서 주민들이 이전엔 접할 수 없던 자본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

데 따른 체제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더불어 탈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고문은 중국의 경제, 정치적 부상을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미칠 두 번째 큰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은 어제의 중국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아시아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그것이 정점에 다다를 것이고 한반도 단일화와 통일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고문은 "이번 천안함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이라며 "한반도를 전쟁에 대한 공포로 몰아넣어 맹목적 평화주의자들로 인해 남한 내 갈등을 부추기고 세력을 확장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여드름 고민 해결!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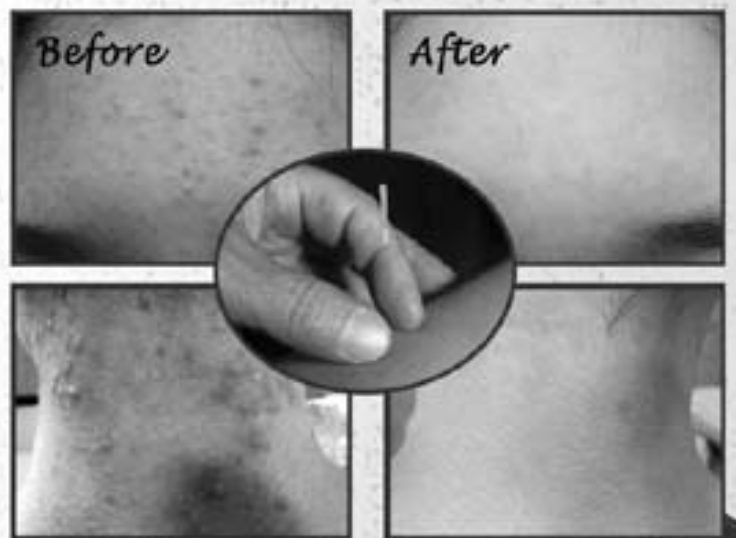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 의과 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



Tel. 213-380-0835



### 박종길 칼럼



박종길 목사  
엘바인온누리교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나이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분은 모세와 갈렘입니다.

여호수아도 적은 나이에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 80세에 부름을 받은 모세나, 85세 때, 40대의 건강과 기력의 왕성함을 고백하는 갈렘만큼 나이로는 많은 주목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모세와 갈렘은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비록 그 산지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은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산지'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나이가 문제가 되어 주저한다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재정이나 건강, 관계나 신분의 문제이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염려와 두려움의 거인을 믿음과 기도의 물뿔들로 대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클레어 & 커트 클로닝거가 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E-메일"(두란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내 아이야, 어떤 큰일을 하려면 적어도 서른 살은 돼

### 꿈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목표와 부름을 받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완수한 믿음의 조상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모세와 갈렘과 같이 인생의 나이에 의해서 삶이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도전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이가 적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도 부르지만 어린 사람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이 문제고, 꿈이 문제입니다.

육체의 나이보다 마음의 나이가 중요하고, 나의 생각과 야망보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중요합니다. 갈렘은

야 한다고 생각하니? 성경에 나오는 어린 청년들을 보아라.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한 아이들을 보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어른들이 죽는 소리하며 뒤로 뺄 때,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나이 든 제사장들이 모두 자고 있을 때, 어린 사무엘은 사람 소리 같은 나의 음성을 들었다.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한 십대 소녀였지만 내 아들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동의했지 않나.

내 말을 믿고 내 음성에 순종하지만 한다면 나는 누구를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킨다. (정말이야. 내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기다렸다면, 난 결코 아무런 일도 못했을 거야!)

나이는 전혀 문제가 안돼. 너도 그리스도를 통해 큰일을 할 수 있단다. 나는 너를 믿거든. 그러니까 지금 해봐!"

### 양성필 칼럼



양성필 목사  
베델한인교회 행정담당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YWAM에 몸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YWAM에 KING'S KIDS라는 어린이 전도단이 있었습니다. 200여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해외에 가서 전도를 하는 어린이 전도단입니다. 언젠가는

소련에 200여명의 아이들이 전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부터 모두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후원도 부탁을 하고 펀드레이징도 해서, 보통은 모든 경비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으로 뚨를 우리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가 간증을 했는데, 소련으로 선교여행을 갈 거라고 부모님께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믿지 않는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

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무슨 수로 그 비행기 티켓을 마련할 수 있니?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러자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열마든지 저를 보내실 수 있어요" 하면서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 믿음에 엄마가 놀라서, 아들 비행기 비용만 아니라, 그 아들의 친구의 비행기 티켓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됩

니다. 그리고 기도가 충만해 집니다. 어떤 기사가 조지 몰러에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200번 읽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입니다."

조지 몰러만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빼고 신앙을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를 통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공입니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한 훈련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는 시간은 꼭 지키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늘려 가십시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에게 물려왔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마틴 루터도, "나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보통사람과는 정반대의 생각이 아닌가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감동이 왔습니다.

이희돈 장로님 간증 중에 재미난 일화가, 장로님의 아버님께서서는 집안이 4대째 믿는 가정인데도 아버님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도 한국최초의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하루는 아버님께 공급해서 여쭙어 보았답니다. "아버님은 고등학교도 미션스쿨을 나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뭐하셨어요?" 아버님 말씀이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을 내 대신 앉혀놓았지." ...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 그 사람은 목사 됐지."

그 말씀을 듣고 이희돈 장로님이 너무 역을 하셨답니다. 물론 그 아버님께서도 뒤늦게 예수님을 믿는 하셨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버님께서도 일찍 예

## 내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인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24시간이 부족한 분인데, 교회예배시간만큼은 꼭 지키고, 어디 있든지 새벽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각국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 있었던데, 미국 본교회의 예배를 드리려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잔잔한

수를 믿고 더 복된 삶을 오래 누리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양보할 것이 아닙니다. 미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해야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명에 부름 받은 여러분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한요 칼럼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결혼하며 선물로 받았던 중고차가 있었다. 우리 부부의 첫 자동차이기에 참 많이 아꼈는데, 운전하다가 들어온 빨간 불에 대

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결국 과열로 차를 버리게 된 적이 있다. 그 이후 나는 빨간 불, 아니 노란 불만 들어와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김남준 목사는 「실증」이라는 책에서 실증은 우리의 영혼의 적신호라고 말하면서 "영혼

혐오하지도 않는 권태의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렬한 이 사라진 상태로써 권태감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끌리는지, 아니면 배척하는지는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을 진단해 보면 알 수 있다.

예배를 향한 기대가 식어 있는

### 영혼의 빨간 불

의 실증은 곧 영적 권태감입니다. 영혼의 실증은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의 실증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하던 마음이 이제는 거기로부터 멀어져 별로 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졸음으로 가려진 마음, 찬양에도 도저히 열리지 않는 입술이 영혼의 빨간 불, '실증'이 아니겠는가?

예배시종, 눈과 입은 굳게 닫고 있으면서 귀는 열려 놓았다고 우기시는 분들, 강대상 한번 쳐

다보지도 않고, 앞 사람의 뒤통수 머리카락만 세고 있는 분들, 자기 교회 사역에는 술 취한 사람처럼 눈이 풀어져 있다가, 정치나 연예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키는 분들, 이러한 권태기 현상이 꼭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적신호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김남준 목사는 달리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증의 끝은 실증이 아니라 반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증은 반감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실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해진 신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데로 나아가는 전초 단계입니다."

## 미국 사람들의 평생소원!!!

# 미국대륙 횡단 여행

**오는 7월16일 20박21일 여정으로 로스앤젤레스 출발!**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3,000달러.**

LA - 레이크호 - 솔트레이크시티 -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 - 옐로스톤 국립공원 - 데블스타워 국립모뉴먼트 - 러시모어 국립모뉴먼트 - 크레이지호스 - 배들랜드 국립공원 - 시카고 - 나이아가라 폭포 - 허버드대 - MT - 뉴욕 - 워싱턴DC - 루레이동굴 - 세인트루이스 -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 덴버 - 신의 정원 - 로얄고지 - 블레이크년 - 아치스 국립모뉴먼트 - 캐년랜드 국립공원 - 모뉴먼트밸리 - 레이크 파울(크루즈) - 플라그스태프 - 피닉스 - 치리카후아 국립모뉴먼트 - 통스톤 - 사구이로 선인장 국립공원 - 알고도네스 모래사막지대 - 데저트 핫스프링스 - LA

★ 7월16일 LA를 출발, 뉴욕을 최종착지로 하는 9박10일 여정의 서-동 대륙횡단 편도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1,500달러.**

★ 7월25일 뉴욕을 출발, LA를 최종착지로 하는 12박 13일의 동-서 대륙횡단 편도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1,800달러.**

관광 가이드에게 하루 10달러씩 통상 내게 되는 팁 없음!  
 대륙횡단 여행에 17차례나 나선 여행 전문가이자 LA 여행클럽의 간사 지미 김씨가 이번 대륙횡단 여행의 인솔자로 나서게 됩니다!

**28주 40도시 17국립공원 50명소 1만 Mile의 대장정.**  
**전 일정 Bus로 이동하는 미국식 배낭여행.**  
 여행 동호회 'LA 여행클럽'이 이지 LA투어와 손잡고 올여름 대륙횡단여행에 나섭니다.

문의:(213) 388-0777 또는 이메일 [latravelclub@hotmail.com](mailto:latravelclub@hotmail.com)  
 (EZ LA 투어 문의전화는 미 서부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 4055 Wilshire Blvd, #LLA3, Los Angeles, CA 90010 USA



### 진유철 칼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제 개인적으로 삶을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의 원칙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

다. 인간은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

창1:28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명을 따라 일 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 한 후에는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을 맡기신 하나님보다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이 바로 이것

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생각의 구조가 자기 소견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후두암에 걸린 권사님이 아무 때나 찾아와 기도해달라고 하니가 숙제를 내 주셨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벤전 2:24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이것을 한번 이상 쓰며 묵상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열흘 만에 ‘목사님! 숙제가 했어요!’ 하고 권사님이 오시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숙

### 우선순위는 성공의 원칙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행 안 갑니까? 운동 안 합니까? 친구 안 만납니까? 아닙니다. 잘 믿으면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항상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야 합니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잘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소견에 좋은 데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

제 하느라 목이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을 쓰며 묵상하다가 치료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성경 마6:33에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람!

### 정인수 칼럼



정 인 수 목사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일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우리 2세

에 파송될 수 없기에 대부분은 훈련에 순종하게 된다. 바다 위성과 같은 언어적인 전달을 통하지 않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훈련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정신을 지워 나가는 훈련도 받는다. 선교에 들어가는 비용을 위해 계속적인 펀드레이징을 위해 카워시, 잔디 제거, 구두닦이 등 여러 봉사를 하게 된다.

선교지는 주로 중남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이번에도 청소년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 약 70-80명이 선교 사역을 참여하였다. 한 여름의 100도가 넘는 지열 가운데 선교지 현지민중 가장 가난

강인한 사역 가운데 청소년들의 의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살아가는 복미주의 삶이 얼마나 호사스럽고 풍요한 것인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남을 섬기고 자기를 나누어 주는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무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현지 청소년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하며 선교적인 마인드로 무장하게 되었다.

이런 선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이 세계관과 자기의 사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자녀들이 교회 학교

###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들은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매우 미약하다. 자기를 챙기고 돌보는 데는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남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는 부족함을 느낀다. 더불어 지나친 풍요의 바다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고생을 견뎌야 하며 자원들을 헤프게 사용한다.

우리 교회는 9학년 되는 때 아이들을 단기 선교로 보낸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 매년 초부터 훈련을 받게 된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몇 달에 걸쳐 매주 몇 시간씩 훈련을 격렬히 받는다. 맨 처음에는 짜증도 내고 불만도 터뜨리지만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선교의 현장

한 사람들의 지분을 해 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들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거칠고 혹독한 노동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현지 교회들을 다니며 여름 성경 학교를 열어 주었다. 그리고 현지 교회에서 매일 찾아오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배식도 해 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었다.

그리고 현지 청소년들과 밤에는 같이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비전, 삶, 그리고 신앙을 나누는 시간들도 가졌다.

물론 배알이를 하고, 몸살이 나고 지나친 땀을 흘리므로 탈수 현상도 일어났다. 그러나 그 모든

에 리더십을 발휘하며 리더로서 양육된다. 그리고 그들이 훗날 장교 선교사로 혹은 목회자로 혹은 사회봉사 사역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되기도 한다. 교회 학교의 분위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해 지고 영적인 성숙이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선교로 인해 나타나는 은혜들이다.

우리 자녀들을 열약한 선교지에 보내자!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그들의 가지는 세상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심정들을 부서뜨리자!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일꾼들로 세우 나가자!

### 현순호 칼럼



현 순 호 목사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 지역 한인교회 총무

고통 없이 살 수는 없을까! 만일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길을 찾아가리라. 내 일생에 늘 따르던 숙제를 히브리서에서 명쾌하게 해결했다. 내용인즉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

리스도도 세상에서 심하게 통곡을 하며 살았다는 내용이다. (히 5:7) 맞다. 평범한 내가 눈물 없이 고통도 없이 살겠다는 마음은 처음부터 삶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따라서 생각을 바꾸었다. 즉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고통을 벗어나려는 생각 보다는 잘 활용해서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보탬이 되는 기회로 삼자는 전략이다. 인간이 지닌 고통 중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어떤 이는 심지어 태어나면서 부터 몸이 약해 일생 병과 싸우기도 한다. 그러나 강한 정신력이 있으면 육체의 약한 면을 이길 수 있다.

전 유럽을 정복하고 천년 로마 제국의 틀을 마련한 씨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사람구실을 못 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다. 더욱 흉측하게도 간질병이 있어

자주 어디에서나 쓸어졌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 자신도 그것을 알기에 외롭게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점을 극복했다. 외로울 때는 산에 올라가 소나무들을 사람처럼 여기고 큰 소리로 자기의 속사정을 털어놓으

### 아름다운 고통의 열매

면서 땀을 키우고 웅변가로 변신하게 되었다. 그의 열변과 땀은 후일에 사람들을 끌어 모아 강한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는 약한 육체를 강한 정신력으로 정복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다. 약한 사람 또는 간질병을 가진 사람이 누구나 씨저처럼 다 되는 것은 아니

다. 얼마만큼 피 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그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놓는가는 본인의 몫이다.

또 다른 고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다. 사람은 운명적으로 다른 사람과 같이 살게 되어있다. 부모 형제 자녀 친

구 부부가 있게 마련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동료가 생기면서 그 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경쟁, 사랑과 배신, 질투, 증오가 섞여 돌아가고 원수가 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 고통은 따르기 마련이다. 성자 바울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적이 없으나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줄을 썼었다. 심지어 그를 죽이기 전에 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

람들이 40명이나 집합하여 그가 지나가는 길에 숨어 있기도 했다. 이것이 사람 사는 현실이다. 심지어 모든 욕심을 버리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 하늘을 지붕 삼고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논밭을 벗삼아 자급자족하며 많은 시간을 묵상 중에 사는 수도사들에게는 고통이 없을까? 그 곳에도 다른 면의 고통이 있다.

문제는 고통을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자의 길이다. 그것은 만사를 사랑하되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 하는 마음이다. 나는 근래 새로운 경험을 했다. 창문이 밝아오면 아내와 같이 계곡을 따라 산책을 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다. 그 길에서는 주인을 따라 나온 개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순해서 처음 만나도 꼬리를 흔들며 쓰다듬어주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유난히 한 마리는 나를 보면

짖다 못해 이빨을 드러내고 당장 물을 듯한 태도를 취한다. 그 것도 매일처럼...나는 한 가지 방법을 취했다. 개가 좋아하는 과자를 준비했다가 만날 때 마다 주었더니 이제는 주인 보다 나를 더 좋아하며 따른다. 사람도 같은 원리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또 한 내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다. 보라!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침입자 모래알이 속으로 들어오면 그 아픈 상처 부위를 눈물로 씻고 또 씻기를 수백번 하여 모래알이 진주로 바뀐다. 모래알이 준 아픈 고통을 통해서 조개는 귀한 보석을 만든 것이다. 인간도 숙명처럼 따르는 고통을 잘 활용 하면 자신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찾고 또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고통은 필요악인 동시에 잘 활용하면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도구도 된다.

기독일보, 아주관광의 협업 프로모션에 의한 특별가격!

출발일: 9월 27일, 10월 25일

기독일보와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 성지 순례

이스라엘 6박 7일

₩2800 \$2150

방문지: 텔아비브, 예루살렘, 마사다, 불란, 갈릴리, 가버나움, 베헤레헴, 가이사라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 10박 11일

₩3300 \$2599

방문지: 카이로, 시나이산, 타바, 예일랏트, 페트라, 암만, 느보산, 예루살렘, 시해, 불란, 텔아비브, 올바, 갈릴리, 가버나움

- 1. INCLUDE 갈릴리 유람선, 호텔/차량/식사 비용, 가이드, 국제선 항공권
- 2. EXCLUDE 비자 FEE, 이스라엘 출입국세, 벳산으로의 국경통과시, 실로암 입장료
- 3. OPTION 시나이산 낙타등반, 홍해해저 수족관, 가이드/드라이버 TIP, 식당 TIP, 음료, 기타 개인 소비비용

※ 자세한 일정과 호텔/식사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el. 213-388-4000

http://www.usajutour.com, aju@usajutour.com, ajutour@hotmail.com(LA본사)  
Fax. 213-387-1006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이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 블랙앵거스 프라이임 갈비살, 갈비, 꽃살  
▶ 차돌배기, 유가봉 육회지 삼겹살 등...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텍스천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 1-800-489-8775

▪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 행복 이사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신속... 항상 정성... 항상 친절...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Tel. 323-733-2433

삼척이 하면 다들입니다!



##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도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n Ave, #1, Los Angeles, CA 90001

##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Natural Hot Spring!

##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온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1달 동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켜주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더 나은 보편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

제임스 정 장로  
EXECUTIVE DIRECTOR

Tel: 213.725.7217 ..... 세월즈 하실본 모임

블라인드 커튼 전문 업체

##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관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327-9929 213-909-5518



SK한국전화기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분당 2C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 문의: 213-435-0608

##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포드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 결혼꽃 전문 기니꽃집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기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이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연교육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 Tel. 213-284-4111

##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한국 ₩ ↔ \$ 미국

당일 동시 (고액 전문) 소액도 가능합니다

T. 213-388-4989

한국은행 ▶ 미국은행 송금서비스 가능

##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따뜻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운수 / 현대캐피탈 / 무손  
최고급 유럽완전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6844, LA / 3기미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 컴퓨터 HIS.COM 출장수리전문

오픈기념 세일 컴퓨터 수리

start \$ 29

- 컴퓨터 판매, 수리
- 컴퓨터 조립, 공구, 수리, 파일백업 및 관리
- DVR/IP CAMERA
- 4CH DVR \$1,199

# 213-810-4000



#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p><b>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b>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p> <p>TEL : 562-926-1023, 4691 FAX : 562-926-1025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p>	<p><b>코헨대학교 &amp; 신학대학원</b> Cohen University &amp; Theological Seminary</p> <p>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p>	 <p><b>국제개혁대학교</b>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amp; Seminary</p> <p>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p>
 <p><b>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b>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p> <p>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p>	<p><b>국제기독교교육대학</b>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p> <p>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7월 19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p>	<p><b>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b>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p> <p>TEL : 714-879-7952 / FAX: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p>
 <p><b>세계기독교대학교</b> World Christian University</p> <p>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p> <p>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p>	<p><b>풀러신학교신교대학원한국학부</b>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LS Ko.Studies</p> <p>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p>	<p><b>피드몬트대학교</b> Piedmont University</p> <p>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p>
<p><b>다니엘신학대학원</b> Daniel Theological Seminary</p> <p>〈장학금을 지급함〉</p> <p>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p>	 <p><b>솔로몬대학교대학원</b> Solomon University, SU</p> <p>총장 Dr. Esther J. Baik Ph.D 박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p> <p>TEL : 213-381-7755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School Code : 94809</p>	<p><b>칼빈성서신학대학원</b> Calvin Bible College &amp; Seminary</p> <p>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p>
 <p><b>미주개혁신학대학교</b> I-20 발급</p> <p>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p>	<p><b>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b>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p> <p>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p> <p>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p>	 <p><b>미션신학대학교</b> Mission Christian University</p> <p>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p> <p>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p>

## 지금우리집 전화를 아이토크비비로 바꾸어, 놀라운 혜택! 놀라운 절약량이 기다립니다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선시애틀리카 선정]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지 **\$9.99** /월\*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첫 3개월에 한함, 이후 \$24.99/월)



Miss Korea Washington D.C. 시상식에서 다이앤김 이사와 Miss iTalkBB 김경은 양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는 유지하고 싶지만 높은 기본요금 때문에 걱정하신 분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한국 등에 국제전화를 많이 가시는 분
- 미국 인터넷 환경에 맞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 영어가 불편해 한국어 고객센터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 외출시에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국제전화를 걸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1-800-875-8318 고객센터원 •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관세 항목에 따라 통화분량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 2년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80.00의 약정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연선시 출금액을 합산해 부과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계약 관련 가입자에게는 개별문의(800)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 우리집 전화]  
**iTalkBB**



지금 쓰고 계신 집전화와 비교해보세요!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까지 하나로!	한국에서 국내 통화하듯 미국으로 전화 [마이 코리아 넘베]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국제전화 [아이토크글로벌]	30일 환불보장
<b>\$9.99</b> /월*	개통비(\$29.99) 면제

iTalkBB 사업자 모집

한인 출입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최대** 규모, **최다** 차량 보유,  
**최신** 장비 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 가격 보장"

**\$99**을 내시고 **예약**을 하시는 분께 명차를 우선적으로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 7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현대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399/12K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199/3YR** STK:031704



**2010 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2,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99/3YR** STK:101312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199/12KMILE)  
스포츠 카의 최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59/3YR** STK: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1,9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59/3YR** STK:049539



## 7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2007 BMW 328I WHITE STK:PZ70863 \$21,890	2008 NISSAN ALTIMA SILVER STK:P226495	2007 HYUNDAI AZERA LTD GRAY STK:P185167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P586665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P018925 \$28,890	2009 TOYOTA SIENNA LE BLUE STK:P277257	2008 HYUNDAI AZERA LTD SILVER STK:P295894	2003 MINI COOPER CONV. PURPLE STK:568848A
2005 NISSAN FRONTIER SILVER STK:P461103 \$10,890	2005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9 HYUNDAI ELANTRA SILVER STK:P618846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9 HONDA ACCORD WHITE STK:P021316A	2008 HYUNDAI ENTOURAGE GRAY STK:P052717	2008 NISSAN ALTIMA GRAY STK:P199144
	2007 CHRY TOWN&COUNTRY RED STK:P304471	2009 HYUNDAI GENESIS SILVER STK:P031934	
	2005 HONDA PILOT EX BLACK STK:0251338A	2009 HYUNDAI GENESIS WHITE STK:P048693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함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Assurance is based on new Hyundai, and for the best price/lease plan/finance, visit us on Hyundai.com